

여수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 출범...갈등 예방·해결

법조계 등 위원 14명 첫 회의 활동 방향·조정 방안 등 논의 공공정책 수립 민원·갈등 중재

여수시의 공공정책 수립 및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수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을 시작했다. 여수시는 최근 시의원·법조계·언론·시민단체·갈등 전문가·시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선제적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최근 김종기 부시장(위원장)과 위원 11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여수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구성됐



여수시가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해 위원 11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여수시 제공>

다. 공공갈등관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갈등조정전문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임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갈등 전문가의 공공갈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활동 방향, 주요 정책사업의 공공갈등 수준 진단, 맞춤형으로 갈등 조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수시의 경우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공공갈등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갈등이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예방과 해결 노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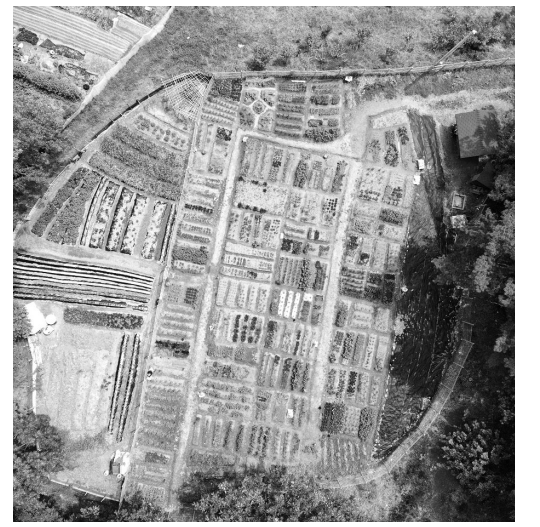
김종기 위원장은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현대사회는 공공갈등이 심화되며 오랜 기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지역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2021년 말 여수시의회 제215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공갈등심의위원회와 주무부서인 민소통담당관실은 주민갈등 발생 전이나 후 절차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위원회가 결정 기구나 조정자의 역할이 아니만큼 대안을 제시하거나 선호 정책 제시를 하지 않고 상호 치유와 회복, 추후 관계 정립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순환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조례동·연향동·신대지구 순천시 도시텃밭 3곳 개장



순천시 조례동에 개장한 도시 텃밭.

순천시가 이달부터 조례동과 연향동, 신대지구 3곳에 도시 텃밭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도시 텃밭 3개소 운영 텃밭은 모두 모두 271구좌이다. 구좌당 텃밭 면적은 10㎡이다.

텃밭을 분양받은 시민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2개월간 텃밭을 가꾼다.

이곳에서는 사과, 배, 쇠스랑 등 농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텃밭이 개장하기 전에 예비 도시농부 271명은 도시 텃밭 운영 지침을 안내받고 텃밭 관리 기본 교육을 받았다.

도시농부들은 배정받은 구획 안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재배 과정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단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 비닐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실천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 텃밭 활동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생활로 가족 간 유대감을 더욱 쌓을 수 있고 텃밭 활동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농업 생활화를 위해 도시 텃밭 경작자들이 책임감 있게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발굴 생활인구 확대 등 정책 추진

구례군이 최근 김순호 군수 주재로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열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인구감소 대응사업 발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례군 인구는 2만4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명(-2.2%) 감소했다. 5년 전인 2018년보다는 2469명(-9.1%) 줄었다.

구례군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해마다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점을 고려해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달 열리는 산수유꽃축제와 벚꽃축제 안전관리 대책과 임학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현안 업무도 논의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 화정 개도 간척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여수시가 화정면 개도 간척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한다.

지난 1월 농어촌공사로부터 화정면 개도리 1813번지 일원 15만5856㎡ 규모의 간척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 1월에 조성사업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그동안 염분농도가 높아 농경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개도 간척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3월 개도 간척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하고 같은 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립지 관리·처분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방치된 개도 간척지를 차별화된 여수시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물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인근 시·군 대형 박람회 활용 관광 활성화 도모

관광시책 발굴·추진 보고서

홍보·서비스 56개 사업 추진

광양시가 인근 시·군 대형 박람회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인근 도시 대형 박람회 연계 관광시책 발굴 및 추진 보고회를 열었다.

주순선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인근 도시의 박람회 특수 관광객 견인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했다.

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10월), 하동 세

계 차 엑스포(5월4일~6월3일) 등과 연계한 매력적인 관광시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광수용태세 대비 전담반(태스크포스)을 구성해 분과별 방안을 마련하고 순천시와 하동군 과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매달 실무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인근 지자체 박람회 특수 관광객 흡수를 위한 노력을 할 방침이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시책은 홍보, 서비스 등 4개 분야 총 56개 사업이다. 거리 공연(버스킹)과 토요 장터, 도시경관 개선 등이 담겼다.

대표 음식인 광양 불고기와 광양 닭 솥불구이 등

맛집도 발굴하고 특화한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음식·숙박 할인, 교통 대책 등도 꾸준히 추진한다.

관광객 유인책으로는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명소 여행, 박람회 연계 광양시투어, 목재문화체험장·치유의 숲 이용료 할인 등이 있다.

주 부시장은 "인근 시군의 대형박람회는 다양한 내·외국인 관광객을 견인할 좋은 기회"라면서 "피부에 와 닿는 매력적이고 다각적인 연계 시책으로 박람회 방문객이 광양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 산수유 시목 활짝...11일부터 산수유꽃축제 6일 구례군 산동면 계척마을에 수령 1000년 된 산수유 시목(始木) '할머니 나무'가 노란 꽃망울을 활짝 터트렸다.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와 산수유 군락지 일원에서는 '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4년 만에 대면 개최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3주간 'ITQ 한글' 자격증 교육



보성 주민들이 군청에서 정보화 수업을 듣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3주에 걸쳐 지역민의 '정보기술자격(ITQ) 한글' 자격증 취득을 돕는다.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3시간씩 보성군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수업이 이뤄진다. 교육비와 교재비 모두 무료다.

전문 강사가 실제 업무 중심의 작업형 문제를 함께 풀어볼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준비 청년 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수강 신청을 하려면 보성군청 총무과 정보통신팀(061-850-5143)에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이 정보사회에 필요한 정보기술(IT)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에 잘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전통시장 활성화 시골벽적 프로젝트 숯불생선구이 브랜드화

고흥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흥전통시장 시골벽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고흥군은 최근 관련 사업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갖고 고흥전통시장의 특화상품인 숯불생선구이를 고흥의 대표 먹거리로 브랜드화한다는 구상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숯불생선구이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갖 구운 숯불생선구이를 바로 맛볼 수 있도록 고흥전통시장 내 숯불생선구이 전문시장을 갖추고 푸드코트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인근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시장을 방문하는 단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고흥읍 남계리 622 일원에 주택 13동을 매입해 대형버스 6대, 일반승용차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으로 고흥전통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숯불생선구이를 브랜드화해 특화하고,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고흥전통시장이 관광객 등 많은 인파로 북적대는 지역 명소를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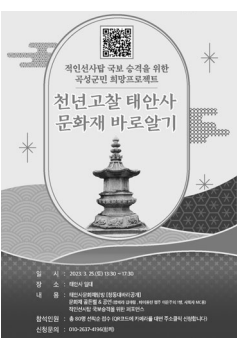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태안사 적인선사탑 바로 알기'

곡성군 25일 답사·퀴즈 등 행사

곡성군이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위해 문화재 알리기에 나선다.

곡성군은 오는 25일 태안사 일대에서 '전년 고찰 태안사 문화재 바로 알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행사는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기원하고 지역 문화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답사, 사진찍기, 퀴즈,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태안사 8개 문화재를 둘러보고 특별 사진찍기 행사를 할 수 있다. 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현존 최대 청동대바라가 공개된다.

팝페라 공연, 골든벨 퀴즈, 바이올린 협주 등 미니 콘서트와 게임이 진행된다.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지역민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 861년 적인선사 해철 스님의 입적 이후 행적을 추앙하고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승탑이다. 1963년 1월21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273호로 지정됐으며 곡성군은 지역 대표 문화재인 적인선사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학술대회와 발굴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